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1-7)

시편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 올라가는 노래들

학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 다음의 4가지로 설명합니다.

- ① 올라가는 것은 시편 안에서 등급 매기기 또는 계단이다.
- ②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 ③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다.
- ④ 매년 절기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시에는 다른 시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높은 차원의 신앙과 영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성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순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이 세상에서 외방인

본 시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도,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상도 없고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망향의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① 거짓말 하는 이웃

3절에서 노래하는 이들은 개인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입술들과 속이는 혀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 라고 기도합니다(2절). 그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짓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거짓 기도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② 적의를 지닌 이웃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할 때 노하거나 슬퍼합니다.

5절의 메섹과 게달은 백성의 이름입니다. 메섹은 야벳의 아들로 미개인을 의미하며,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좋아했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미개인과 난폭자의 장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과 같아서 그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시에서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수난과 고뇌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가 참으로 쉼만한 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진실한 성도들과 사귀기를 그리워하고 시온의 평화를 그리워하는 성도가 성전들 향해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성전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A song of ascents to the temple

(Psalm 120:1-7)

In these fifteen Psalms (120-134), we find the common title, 'A song of ascents.'

1. Songs of ascents

Scholars explain possible meanings of the title, "song of ascents":

- (1) Ascending in the Psalm as symbolic gradations or stairs leading to the temple.
- (2) Ascending to the temple for regular worship
- (3) Ascending from the exile of Babylon to Israel
- (4) Ascending for the annual religious pilgrimages to Jerusalem

This psalm does not reach the usual level of faith and spirituality that other psalms do. It was originally intended for pilgrims to sing as they were on their way to God's castle town. However, through this image, Christians can gain encouragement, as they ascend to heaven from this dark world.

2. Gentiles in this world

What is surprising in this psalm is that it doesn't mention Jerusalem. What is more, the ascent to Jerusalem is still only an idea, as the residents feel nostalgia living in a foreign country.

(1) Neighbors who tell a lie

Verse 3 seems to express what other individuals had been saying. The people pray that they would be saved from these lying lips and deceitful tongues (v. 2). These prayers express the kind of world we are living in. If we want to be true Christians, we must pray that we would be saved from deceit, but not pray deceitfully.

(2) Neighbors who have hostile feelings

Most people think that they love peace, but they don't. When others accomplish their goals and become more successful, they get angry and sorrowful. Meshech and Kedar are people mentioned in verse 5. Meshech, who is Japheth's son, means 'barbarian', and Kedar is Ishmael's son. Both people liked wars and didn't live in peace. Just as God's people lived among such people in the world, Christians should learn how to live with barbarians and violators within their own curtains.

Conclusion

This psalm confirms that Christians who live in the world undergo repeated suffering and pain. There is really no house where Christians may rest in the world. Therefore, only Christians who admire the Lord, yearn to make friends with other faithful Christians, and long for the peace of Zion, deserve to sing the songs of ascents to the temple. Though we live in the world, we must yearn to ascend to the temple everyday.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us will sing a song of ascen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9 사명자 대회 중반전 돌입

10월 23일(금) 오후 7시 현재 1,540명 참여 · 성경7독 통독 중

2009년 사명자 대회 50일간의 대장정이 중반전에 돌입하고 있다. 기도의 책임을 맡은 성도들은 본인의 시간에 책임있게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명자대회 본부는 릴레이 기도자들에게 101호 앞에 비치된 기록책에 빠짐없이 자신의 이름과 읽을 성경 분량을 기재하고 들어가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에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성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오늘 주보에 간지로 '2009 사명자대회 태신자 카드'를 배부하였다. 태신자를 작성한 이들은 태신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태아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정성을 다하여 출산하는 것처럼 사랑과 기도와 권면으로 양육하기 바란다.

오늘 배부된 태신자 카드는 현금함이나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교회는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전도편지도 발송하여 성도들이 작성한 태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측면에서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풀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10년 교회 봉사 지원서

11월 1일(주)까지 사무국으로

내년 교회 각 봉사부서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지난주 주보 삼지로 배부된 2010년 교회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교회는 성도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각 부서 운영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원서 작성요령은 먼저 지원서 상단의 본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특히 동명이인 구별을 위해 교적번호나 본인 이름 뒤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 예: 이아무개1 김아무개2 등) 두 번째, 현재 본인이 봉사하고 있는 부서와 봉사연한을 기재한다. 이번에 처음 봉사신청을 하는 성도들은 2010년도 처음 봉사 신청자란에 ☆(별표)한다. 세 번째, 내년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 중 1지망에 O표 2지망에 △표를 한 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2010년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 지원을 하여 각 부서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시길 기도한다.

2009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대상 : 박연준(초등부), 손영희(8교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식

지난주일 부서별 예선을 거친 이들이 모여 치른 2009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본선이 지난 10월22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열렸다.

본선에 참가한 이들은 교육1국: 15명, 교육2-5국: 10명, 영여성경암송: 2명으로 총 27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부서별로 나뉘어 성경암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대상 : 박연준(초등부), 손영희(8교구)
금상 : 전민찬, 장혜라(유년부), 이영선(11교구), 김진달(7

교구/영여성경암송)
은상 : 김은초(초등부) 전민경(유치부) 송영준(11교구) 신가현(대학부)

동상 : 장하늘, 나준수(유치부) 박은주(11교구) 이신원 김유진 하혜빈(중등부팀)이다.
입상자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상상을 하며 성경암송도 하게 된다.

내년 성경암송대회에도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2009년 10월 학습 · 세례식 여행

교육 및 신청은 새가족부로

지난 10월21일 수요일 1,2부 예배 시 학습 ·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일 1,2부예배시에 학습 ·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또한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 ·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

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 · 입교 · 학습 ·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김영주7 박지현3 이상범 이연숙2 이영재 이윤지 정주원1 천성은 한혜선2 허소정 홍남규 -계 11명
- <입교자> 김병찬 안은경 이승지 노희균 -계 4명
- <학습자> 류한민 박소혜 신은영 우상용 이경패 이동호1 -계 6명
- <유아세례자> 강예교 김하얀 노진희 설재윤 윤민준 조민성 최승유 -계 7명 이상 총 28명

호산나대학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수상

지난 2009년 10월 17일(토)~ 10월 18일(일) 2일간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200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에 흥동군 체육교사의 인솔 하에 호산나대학생 16명이 참가하였다.

호산나대학팀은 실내조정 경기부분



8명, 역도대회부분 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동군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이번 대회를 준비하여, 실내조정 1,00M부분에서 김현승(2위)의 2명, 역도 부분에서 한철구(1위)의 2명이 각 부분 상위권 입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제2권사회 주관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 여성정장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제2권사회(회장 이영자1 권사)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한 여성정장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불우이웃(발달장애인, 탈북자)를 돕기 위한 자선바자를 실시한다.

11월9일(월)부터 12일(목)까지 4일간 실시되며 백화점 상품권 기간 행사 5% 할인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

10월 성경통독자

- <12독> (8교구) 강애자 권사
- <2독> (2교구) 안창휘 집사 정봉금 권사 (5교구) 성경준 장로 장낙희 권사 이윤영 권사 (6교구) 강영순 권사 이영희7 권사
- <1독> (3교구) 광선자1 권사 신선주 집사 이해순 권사 (4교구) 승영강 권사 (6교구) 함은희 권사 (7교구) 김영례 권사 공진문 권사 (8교구) 송갑순 권사 임윤자 권사 채덕희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1교구) 이경희2 권사 정미자 집사 (12교구) 김예환 권사 최근자 권사 (13교구) 김정애 권사 (14교구) 박정임 집사 광태순 성도

화요 정오 음악회



10월 27일(화) 정오 -차주연 오르간 독주회(미국 아리조나대학 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석사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박사
현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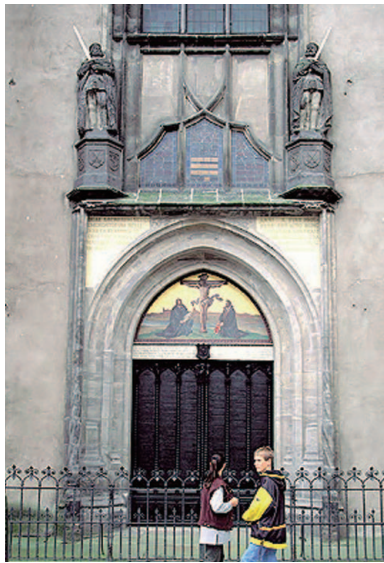
종교개혁주일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최대 산실인 장로교회를 출범시켜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

492주년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순례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 번 돌아본다. 편집자 주

오늘은 제492주년 종교개혁주일이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제하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시작되었다.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루터는 교황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며 기독교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닌 성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성경의 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립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요한 칼빈은 26세의 나이로 『기독교강요』를 저술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개혁신학을 확립하였다. 그의 신학체계는 오늘날의 역사적 칼빈주의를 이룩하였으며 개혁교회의 최대 산실인 장로교회를 출범시켰다.



95개조 조항의 문

구한말 우리 민족은 열강의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들은 민족의 식 고취에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쳤고 읽게 했다. 성경은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다. 신사참배는 한국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오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6.25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교회의 분열은 계속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였으나 각종 이단 종파들이 발생하여 정통교회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장자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장로교회도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어 그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다. 선교 2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는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개혁과 연합에 힘써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김재근집사(제1스데반회장)

참 진리 되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었던 몸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 하시어 참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나태한 몸 일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은혜를 내리사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어 복음의 빛을 전하는 등대의 사명자로 세우시니 주님의 뜻 따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한 생명의 잉태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아픔과 사랑을 온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웃을 진정으로 아끼며,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국가와 민족이 나갈 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 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그리고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주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영혼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자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온 누리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늘 사랑과 은혜 속에 풍성함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선교사 교육을 받으며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신평강, 강사라 선교사(동남아시아 파송예정)

대학생 시절 단기선교를 함께 참가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동남아시아 선교.

선교의 부르심으로 20대 청년의 때에 첫 발을 내딛고 3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분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저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정보미디어관련 비즈니스 선교와 현지인들을 향한 교육 선교를 맞보면서 저희 부부는 더욱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들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감사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서울교회 선교사가 되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장기선교사로 재 헌신을 하며 파송교회를 두고 기도했을 때에 중점적으로 드렸던 기도 제목은, 단순히 재정지원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와 하나가 되어 깊이 교제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서울교회'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회에 출석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선교지향적 교회 분위

기와 이종윤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설교, 선교사와 사역을 돕기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 주말에 교역자님들과 함께하는 토요전도대 노방전도나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전도 또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잠깐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아직도 추수할 곡식이 주위에 많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몇 개월 후에 선교지로 들어갈 것이며 성도님들의 지원과 사랑은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 기도의 단비가 주님나라의 영혼들로 되돌아올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 기도 제목 -

1.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2. 부부가 건강하게 새로운 환경 잘 적응하게 하소서.
3. 동남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4. 파송 및 후원교회, 후원자들을 축복하시고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소서.
5. 주신 기술 (IT와 의료영역)을 통해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소서.

특별찬양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박두호 장로
(찬양위원장, 베들레헴 찬양대 부장)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음악적 준비도 중요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서울교회에 세움을 받은 찬양대가 예배를 돕고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먼저 수고의 땀을 흘리며, 아름답게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원은 찬양대가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설 수 없는 복된 자리임을 알아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지만, 먼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찬양대도 말씀위에 바로서고 변화를 받아,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매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남성합창으로 찬양 드리고 있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으로 드린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베들레헴 찬양대는 남성 특유의 깊고 중후한 앙상블로 신앙적 고백을 노래할 것이다.

오늘은 '불같은 성령 (John W. Peterson)' 외에 3곡으로 찬양 드리며 지휘 김정훈 집사, 오르간 오신욱 집사, 피아노 박수강 성도가 수고 한다.

비전을 품는 찬양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베들레헴 찬양대가 오늘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교회 남성 찬양대로, 지난 18년을 하루같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지친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들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화) Theological Journal of KIMCHI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9일(목)서울장신대 종교개혁기념체를 설교를 한다. 30일(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한국동문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비전2020운동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유문건 목사 전화: 010-2274-7818
- 오광환 피택장로(12교구)는 지난 21일(수) 서울강남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하였다. 11월22일(주) 안수식을 갖는다.
- 수상: 박세영성도 (청년부, 임마누엘찬양대) 제49회 동아음악콩쿠르 여자성악부2위
- 득남: 최영철 성도 진주희 성도 가정(7교구)
- 득녀: 권재현 집사 음혜경 집사 가정(6교구)
- 이사: 7교구 조상계, 이유희 성도 광진구 자양3동 856번지 이튼타워 5차 D동 302호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남선교회(10.25) 이삭남선교회(11.1)
- 금주의 식사: 임재중 성도 김인영 집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나의 하나님

이제라도 불러 주시니

우종암성도 (3교구)



서울교회 안수집사인 친구로부터 성경책 2권을 선물 받고 창세기 몇 장을 읽어보았으나 무슨 뜻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지루하기만 하여 책장에 꽂아놓기만 한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초 아내가 병원진단 결과 중병에 들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동안 가끔 불공드리고, 때가 되면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시주하는 것이 나와 아내의 유일한 믿음이었고 이 길이 곧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왔던 나였습니다. 또 평소 법과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면 비록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중병에 들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온 30여년의 세월에 이별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즈음하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까운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휴일이면 등산이 취미였고, 골프와 바둑을 두면서 소일하던 나로서 교회에

소비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했던 평소의 생각과는 달리 아내의 병 때문인지 어디라도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 전에 주고 간 친구의 성경책과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마침 딸이 서울교회에 다니니 서울교회를 나가는 생각에 2006년 2월, 아내와 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새가족부에 들어가 성경공부를 하는 등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정적인 교사와 전도사의 지도가 있었기에 새가족부와 소요리문답부 교육 등을 무난히 이수할 수 있었고, 연말에 세례를 받은 후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까지 기도는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009년 여름부터 새벽기도를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축복을 왜 늦게야 주시는 지 지나간 세월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는 천국에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성도로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역시 이제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2009 사명자대회 통해 받은 사명을 확인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외시는 길

